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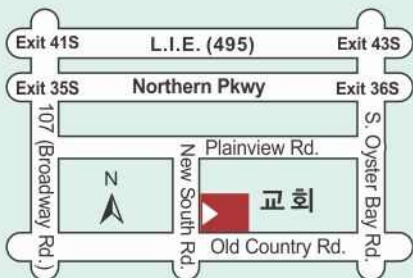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 부 예배 오전 7:30	본당
	2 부 예배 오전 9:00	본당
	3 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영어 예배 오후 1:00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당
수요 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자훈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교회 오시는 길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C) Fax (516)938-3824
www.yalechurch.org

Vision 2021 - 헬로십 마치

예배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중훈목사		
신앙고백 Confession	다 같이		
찬송 Hymn	79장, 211장		
기도 Prayer	권철훈집사	윤희주장로	유학준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시(Psalms) 19:1-14		
찬양 Anthem	예일관악단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Sermon	주님 앞에 열납되는 생활 김중훈목사		
찬송 Hymn	630장		
봉헌 Offering	다 같이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찬송 Hymn	635장		
*합심기도 Pray Together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중훈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be standing)

*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기도	1부 신영필집사	2부 김두성장로	3부 정수영장로
방송설교	KRB FM 101.5(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Cablevision Ch.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7:00~7:30)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SN(www.csn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2. 교회학교/목장/선교회/사역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3. 환우, 선교사, 선교지, 방송선교를 위해
4.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질서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임직자들을 통하여 계속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도록

본문: 엡(Eph) 4:1-16

제목: 교회가 교회되게

코로나바이러스는 많은 면에서 우리의 시선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교회를 보는 눈에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갈망이었습니 다. 마치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조직이나 직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시선은 교회를 위계질서의 사회로 보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 속에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노회, 총회 등 많은 회의가 있어 왔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니 교회를 회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치나 설비의 편의함이 교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교회를 건물 중심의 교회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 전염병은 교회의 문을 닫게 했고 심지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배와 교제에도 막대한 제한을 가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설교자, 반주자, 방송요원 등 예배 필수 요원 세 명만 이 큰 건물에 들어 올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직이나 직분도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니 회의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건물의 의미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참 모습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1-6절)

교회는 조직과 직분이기 보다 몸입니다. 몸은 생명체입니다. 한 몸으로서 교회를 일곱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등 하나일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영적 가족입니다.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시간과 물질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팬데믹 중에도 오히려 교회의 어른들과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2. 주신 은사로 몸인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7-12절)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비교하거나 자랑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못 가르치는 자가 목사가 되면 그 공동체는 고통하게 됩니다. 장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장로가 되면 역시 그 교회는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직분보다는 직분에 맞는 은사로 몸인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을 통하여 이 세 가지 목표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성장보다는 성숙이 우선인 교회(13-16절)

교회를 보는 기준이 성도의 수와 재정적 능력과 건물의 크기로 보는 경향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만든 기준인 것이 분명해 집니다. 오늘 본문은 성숙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믿음)과 아는 것(지식)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있고 지식이 없으면 광신이 됩니다. 지식은 있고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이 됩니다.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각 마디마디에 전달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가장 큰 교회가 아니라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숙되면 성장은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결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인 신자가 사랑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 꾸고 계시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45명의 임직자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잘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새로 세워진 임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장이야기

예일한국학교

가을 학기 한국학교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된 후 1년 반 만에 한국학교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오랜만에 교회에서 다시 만나니 아주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한국학교 첫째 날을 마치고 아이가 집에 오더니 엄마를 꼭 안아주면서 한글학교 가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했다고 학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랜 만이였는지 선생님께서는 2019년 가을학기에 가르친 어린 남학생 두 명을 기다리고 계셨으나 청년 두 명이 들어와서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많이 유명합니다. 음악, 영화, 축구, 드라마 등 세계적으로 유명해 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좋은 기회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일한국학교를 통해 배운 한국어를 좋은 도구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통로가 되는 일에 한국어가 좋은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일한국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향기와 은혜를 끼치는 귀한 분들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예배

온라인 예배 가이드

- * 핵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던 때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 1.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한다.
- 2. 예배 전에 씻고 아침을 먹는다. 식사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 3. 교회 갈 때처럼 예배에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옷을 대충 입으면 마음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 4. 십일조 및 헌금을 준비한다.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실 분은 우편봉투에 넣어 예배시간에 드린다. Venmo를 사용하는 분들은 예배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헌금시간에 맞추어 헌금한다. 주중에 교회에 들러서 헌금하실 분들은 부목사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는다.
- 5. 예배시간(2부 9시 30분, 3부 11시)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 예배를 클릭한다.
<http://www.yalechurch.org/live-stream-sermon/>
- 6. 동시통역: 3부 예배(11시)에 동시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Join Zoom Meeting: Meeting ID: 871 2789 7718 Passcode: 861254
<https://us02web.zoom.us/j/87127897718?pwd=dTFkMG1XN3E2MnBkUTMyUUJFdTBsZz09>
- 7. 다음을 숙지하여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 a. 발을 테이블에 올리지 말고, 예배당에서처럼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 b. 아이들은 부모 옆에 앉고, 예배 중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녀들에게 참을성 있게 앉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 c. 설교 및 찬양 시간에 서로 질문하는 것이나 답답은 피한다.
 - d.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동일하게 일어나고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 e.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배에 참여한다.
 - f. 예배 후에 주어지는 적용질문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10월 6일

기 도 우해숙권사
말 씬 김중훈목사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 씬 김중훈목사

주여 새벽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봉사위원

다음 주 봉헌/안내위원 안내

10월 10일 주일예배	봉헌위원	안내위원
1부	신영필집사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2부	김두성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3부	정수영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10월 13일 수요기도	박지혜권사	예배부

교회소식

예배

1.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2. 예배시간 안내: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온라인예배는 2부, 3부에만 있습니다. 온라인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1. **예배 및 헌금 안내:** 뉴욕 주 성인의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서 6/27일부터 본당에 앉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만,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① 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려집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② 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③ 수요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④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2. 정기당회: 오늘 3부 예배 후 CCM실
3. 9월 성경통독 및 다독자 보고: 통독/10 다독/102
*예배 후 성경통독&다독 상품을 목장별로 친교실에서 찾아가세요(장년교육사역부).
4. 제49기 새가족 만남 중강식: 10월10일 주일3부 예배
5.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과 친교(식사)기도
- 강 단 꽃: 김근태장로&최양미권사(딸, 다비다생일)
- 사랑의식탁: 최원걸&최상희집사(결혼기념), 김근태장로&최양미권사(딸, 다비다생일)
- 떡 대 접: 김경미권사(고 신재호집사 천국환송예배 감사)

새가족

-강사무엘집사&강은혜 (샤론목장, 6선교회, Old Bethpage)

교우동정

- 이사: 김경미권사 White stone, NY 11357
- 부친상: 정미혜집사(한국에서)
- 입원: 최용석집사(NYU Langone Hospital)

행사예고

-9/14-12/21	제 54기 제자훈련 101
-9/21-12/14	제 31기 제자훈련 201
-10/10	제직회

QT본문

요일	일(3)	월(4)	화(5)	수(6)	목(7)	금(8)	토(9)
본문	출(Exod) 25:1-22	출(Exod) 25:23-40	출(Exod) 26:1-37	출(Exod) 27:1-21	출(Exod) 28:1-14	출(Exod) 28:15-43	출(Exod) 29:1-18

목양 칼럼

2021. 40. 독서의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만물이 성숙해 가는 계절에 인간도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해 가라는 말일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독교 교정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원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와 남긴 말은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위대한 영적 성장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었기 때문입니다.

1.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고통이나 즐거움이나는 것은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라.
2.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께 말씀드리려 노력하라. 선행을 행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이지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죄를 지을 때면 "저는 주님 없이는 결코 이보다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고 이 행한 죄로부터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라.
3. 죄를 지을 때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를 짓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해롭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어떤 유혹 같은 것이 생겨날 때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약한 생각은 온데간데없이 날아가곤 할 것이다.
5.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산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내사 다시 우리 영혼을 소유하곤 하신다.
6. 하나님과 동행에서 벗어나거나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죄를 짓는다.
7.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야 만 금보다 귀하게 단련될 수 있다.
8. 한 순간의 경배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빈약한 헌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물줄기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세계는 진보하지 않으면 곧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9.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어려움을 내어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10. 인생의 목표로 인해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만 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11.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을 더 깊이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12.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13. 충동적인 행동은 영혼이 정돈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14. 우리가 가장 자주 빠지게 되는 죄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어떤 경우들이 그 죄에 빠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분을 그분으로, 우리를 우리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끝없이 완벽하신 분이요, 우리는 하잘 것 없는 존재이지만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반대인 우리의 본성을 당신과 같이 되게 해 주신다.
16.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새 생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셋째는 영혼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는 이 연습을 시작할 때 사랑에서 우리나라는 팔막한 기도를 한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섯째로 연습은 처음에는 지속하기 어려워도 신실하게 연습하면 영혼에 엄청난 영향력을 구사한다.
17. 믿음은 영혼의 삶과 양분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게 해 준다. 해야 할 일이 많건 적건, 혹은 쓰라리고 어두운 시간이든 아니든 그는 결코 기도시간을 줄이지 말라.
18. 하나님의 임재란 지식이나 말보다는 마음과 사랑으로 지속되어야만 한다. 프라이팬의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으라. 일을 하는 동안에도 주님이 마치 곁에 계신 것처럼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누라. 잘 되면 감사를 드리고, 잘못 되면 용서를 구하라.
19. 천국시민은 누가 그 믿을 했는지, 또는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항상 전체의 유익을 구한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20. 사소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드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같은 일이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